



고려해운

어촌계 노인정 생활물품 전달

고려해운(대표 최영후)은 12월7일 울산 당사 어촌계의 노인정(울산 북구 당사동 504-1) 개관식을 방문하여 이를 축하하고 생활물품을 전달하였다.

올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100사 100촌 운동에서 고려해운은 지난 5월, 전복 및 미역으로 유명한 울산 북구 소재 당사 어촌계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고려해운은 당사 어촌계와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난 추석 때도 미역과 전복을 다량으로 구입하였으며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려해운은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12월 14일에 서울 상도동 소재 아동 양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시온원을 방문하여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과 개별 선물을 전달하였다.

대한해운

창립 37주년 기념행사

대한해운(대표 이진방)은 12월12일 오전 11시 6층 강당에서 창립 제 37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유공직원과 장기근속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대한해운 이진방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우리 대한해운이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고 자랑스러운 날로서 임우회 원로분들을 모시고 대한해운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 "시황 하락이 예상보다 빨리 도래하여 해운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내년 이후의 경영성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민첩한 자세와 비상한 각오로 앞으로의 변화에 대처하고 향후에도 이번 시황급락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차별화 된 당사만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은 유공직원과 장기근속자에 대해 표창장을 주고 그 공로를 치하했다.

(표창 수상자) △유공사원 : 가스선팀 홍대식 부장, 기획팀 정병인 차장, 블루벨호 추두은 기관장, 마리골드호 문채조 갑판장, 자스민호 김순철 조리장, LNG기술팀 조한웅 대리 △20년 장기근속자 : 전용선팀 이만효 부장, 총무팀 박종탁 사원, 마리골드호 권택준 기관장, 이태진 조기장, 베고니아호 이광호 조기장, 텔타프라이드호 엄종만 갑판장 △우수선박 : 실버벨호

세양선박

유조선 신조로 탱커사업 진출

세양선박(회장 임병석)이 탱커사업에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했다.

세양선박은 지난 12월 26일 서울 소공동 조선 호텔에서 성동조선해양과 석유제품운반선 2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신조하기로 한 2척의 선박은 7만 3,800DWT 규모의 이중선체 탱커로 나프타, 경유, 항공유, 휘발유 등의 석유제품을 중동, 극동 아시아, 유럽 등으로 운송하게 된다.

신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총 995억원 규모이며, 본 선박은 2008년 1분기에 인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석유제품 물동량은 세계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BRICs 국가의 석유 소비 증가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로 인한 석유정제 시설 투자가 정체상태이기에 향후 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세양선박 관계자는 "보수적으로 최근 5년 평균 운임을 기준으로 볼 때 2척의 유조선 운항시 연간 210억원의 매출과 54억원의 매출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에 용선을 통해 2척의 VLCC급 유조선 운항과 함께 유력 해운물류업 중심으로 사업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위해 탱커 사업의 투자를 늘리게 된 것이라고 투자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날 11시부터 2시간 넘게 오찬과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에선 질의 및 응답 시간을 통하여 평소 직원들이 궁금해 하던 회사 운영사항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화가 오갔으며, 직원들에겐 Top Management의 경영철학을 대표로부터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사원들은 자신있게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고, 이대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간담회를 통하여 사원들의 사기 진작 및 애사심 고취에 일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SK그룹은 12월9일 계열사 CEO 및 임직원이 기증한 물품 1만2,000점과 SK 와이번즈 야구단 및 T1 게임단 등에서 기증한 1만여점, 그리고 구호단체 기아대책의 1만여점 등 총 3만2,000여점의 물품을 판매하는 '사랑의 바자회'를 서울 용산 KTX 역사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SK가 기아대책과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최신헌 SKC 회장을 비롯하여 SK해운 이정화 사장, SKC 박장석 사장, 위키힐 유용중 사장, SK C&C 윤석경 사장 등 계열사 CEO들이 자원봉사자 및 임직원들과 함께 판매 도우미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바자회 수익금은 국내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난방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SK해운

일반직사원 대상 대표 간담회

SK해운 이정화 대표는 본사 일반직 사원 30명을 대상으로 11월28일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SK해운은 최고경영자와 구성원간 직접대화를 통해 SKMS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올해 들어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27회의 간담회를 실시해왔으며, 이번 일반직 사원 대상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의 행사는 마무리 짓게 되었다.

STX팬오션

영국 현지법인 출범

STX팬오션(대표이사: 이종철)이 12월6일 오전(한국시간) 영국법인(STX Pan Ocean(U.K) Co., Ltd) 출범식을 갖고 유럽과 미주간을 연결하는 대서양 항로 영업 강화에 나섰다.

런던 트리니티 하우스(Trinity House)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STX그룹 강덕수 회장을 비롯해 조운제 주영 대사, 로버트 하울리(Robert Hawley) 한·영 친선협회 회장, 리차드 풀포드 스미스(Richard Fullford Smith) 클락슨 회장, 존 웰햄(John Wellham) SSY 회장 등 230여명의 내외 귀빈과 현지 해운·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TX그룹 강덕수 회장은 이날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영국 법인 출범을 계기로 영국 중심의 대서양 상권과 아시아 중심의 태평양 상권을 양대 핵심축으로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앞으로 대서양 항로의 영업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해운과 연계된 투자·파이낸싱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STX팬오션 영국법인을 2008년까지 5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는 독자적인 지역본부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영국법인을 중심으로 세계 5대 권역을 연결하는 물류·정보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현지법인 중심의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Global Service Network)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을 전후로 강덕수 회장은 세계 해운

및 조선 정보의 요람인 발틱해운거래소(The Baltic Mercantile and Shipping Exchange)를 방문하고, 로이드(Lloyd), 클락슨(Clarksons) 대표들을 연이어 만나 세계 해운 및 조선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환담을 나누는 등 STX그룹의 성공적인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STX팬오션은 2006년 1월1일부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실질적 팀제 조직으로 전환하여 조직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핵심축 구축을 위한 해외사업 지원기능을 강화하며, 조직의 확대를 통한 외형확대 도모 및 팀조직의 평가 및 보상시스템 개선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괄부문을 기존 3개에서 4개로 세분화하고 10개본부를 13개 본부로 확대하며 부서는 없앤다. 또한 팀을 기존 56개팀에서 51개팀으로 5개팀을 줄일 계획이다.

총괄구분에 대형선 부문을 신설하고, 본부에 정기선/부정기선/대형선 각 1개 본부를 신설한다. 또한 부서 대신에 기획실, 영업지원실(CNTR), 보험법무실, 재무관리실 등 4개실을 신설할 방침이다.

STX팬오션은 2006년 매출을 3조 2000억원으로, 영업이익은 2000억원으로 목표를 잡았다.

한진해운

아시아-남미서비스 개시

한진해운(대표 박정원 / www.hanjin.com)이 일본 MOL과 공동으로 12월부터 새로운 아시아-남미 서비스를 개시했다.

FSA(Far East Asia-Asia-South America)로 명명된 이 정기노선은 3,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11척으로 주간 1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12월 24일 부산을 시작으로 상하이, 선전, 홍콩, 싱가포르를 거쳐, 브라질의 산토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연결하며, 다시 브라질의 몬테비데오, 파라나구아, 산토스, 리오 데 자네이로, 싱가포르, 홍콩, 부산으로 돌아오는 서비스이다.

남미지역은 현재 브라질의 경제성장과 함께 아시아-남미 특히 중국-브라질과의 물동량이 급증하는 해운시장 중 하나로, 한진해운은 그 동안 이 지역의 서비스 확충과 영업 입지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향후 한진해운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물동량이 늘고 있는 남미지역의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 및 신규 노선개설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상선

31만톤급 유조선 신규 취항

현대상선(hmm21.com)은 12월22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31만톤급 초대형 유조선 '유니버설 크라운(Universal Crown)' 호를 새로 인수받아 취항시켰다.

이로써 현대상선은 지난달 9일 같은 크기의 '유니버설 쉐프' 호를 인수받는데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로 초대형 유조선을 투입하게 됐다.

'유니버설 크라운'호(사진)는 길이 333미터, 폭 60미터, 높이 29.6미터로 선박을 세워놓으면 63빌딩(지상 249미터)보다 84미터나 더 큰 초대형 유조선(VLCC: Very Large Crude oil Carrier)으로, 한번에 국내 일일 소비량과 맞먹는 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다.

'유니버설 크라운'호는 인수받자마자 중동으로 취항하여 원유 수송 서비스에 투입되며, 향후 연간 7-8항차씩 중동·아프리카 등지에서 북미·

아시아 등으로 원유를 수송할 예정이다.

현대상선은 이번 '유니버설 크라운'호의 인수로 총 18척의 초대형 유조선과 12척의 중형 유조선 및 석유제품선 등 총 30척의 유조선단을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유조선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됐다.

현대상선측은 "현재 유조선 운임지수(WS: 중동-극동간 VLCC기준)가 155포인트를 유지하는 등 시황이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신규 선박을 적기에 투입하게 돼 향후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유조선 등 비컨테이너선 사업부문을 강화하여, 해운시황의 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추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7만5,000DWT 유조선을 표준으로 속도, 정박 시간, 연료소모량과 유가 등을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각 항로별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한 유조선 기준 운임이다. 전세계 모든 항로에서 운임률과 시황 수준을 쉽게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수치로서 사용된다. 통상 VLCC(중동-극동 간)의 경우 선박건조 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0~70포인트 사이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보통 100포인트를 넘으면 '호황'으로 분석하고 있다.

흥아해운

창립 44주년 기념행사 거행

올해로 창립 44돌을 맞은 흥아해운은 12월8일 이윤재 회장을 비롯한 100여명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문정동 본사에서 창립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윤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회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온 육·해상 임직원 여러분과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

내주신 화주 및 주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임직원들에게 고객이 믿고 함께할 좋아해운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이회장은 또 "무한 경쟁시대에 책임과 목표를 지향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주요 경제 성장국을 거점으로 적극적인 고객감동 서비스를 전개하자"고 언급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개척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회장은 장기근속자를 비롯하여 모범사원 및 어학 성적 우수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부상으로 순금 메달과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한국물류정보통신

선적자동화시스템 중국 서비스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 대표 박정천)의 선적자동화서비스가 중국지역에서 서비스된다.

KL-Net은 LG전자 중국 11개 법인과 중국내 1급 대리 및 선사와의 수출선적업무에 대한 EDI 서비스를 추진해 왔으며, 12월 테스트를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상해, 해주, 남경, 천진에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선적자동화 서비스(www.e-logistics.com)가 중국에서 서비스되게 됐다. 나머지 7개법인에 대한 선적자동화서비스는 내년 6월중에 개시할 예정이다.

KL-Net은 내년 사업계획으로 △항만물류 솔루션 기능 개선 및 고품질화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선 및 고객감동 추진 △국가정책 및 연속성 있는 정보화산업으로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항만물류 솔루션 기능 개선 및 고품질화

를 위해 터미널운영시스템(ATOMS) 기능을 개선하고 RFID를 이용한 응용시스템 개발, 기술표준화 활동 강화 및 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ATOMS는 이용고객에 대한 유지 보수 강화 및 기능 보강 작업, 정부지원사업인 지능형항만운영시스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능을 향상할 계획이며 RFID를 이용한 지능형 자동화게이트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항만물류통합정보시스템(PLISM) 서비스 활성화 일환으로 내년 1월 고려해운에 PLISM중 수입 컨테이너관리시스템을 제공해 개시한다. 또 PLISM에 검수검정시스템을 개발 및 통합테스트를 1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선급

항만보안 교육기관에 선정

한국선급(회장 이갑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책임자 교육과정'이 12월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교육생에 대한 교육이수 점수를 부여하는 해양수산부 지정교육과정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본부, 산하기관인 중앙해양안전 심판원, 국립과학 수산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 수산물 품질 검사원, 동해 및 서해 어업지도 사무소, 소속기관인 12개 지방해양수산청에 근무하는 일선 공무원이 ISPS Code에서 요구하는 관련지식의 습득 및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한국선급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선급은 2005년 1월부터 개설된 상기 교육을 통하여 지금까지 신규교육 4회, 보수교육 3회가 개최, 총 350명(신규 138명, 보수 212명)의



수료자를 배출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 보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항만경제학회

신임회장에 인하대 장영태 교수

한국항만경제학회는 12월2일 서울 COEX에서 '2005년 한국항만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으로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장영태 교수를 선출했다.

한국항만경제학회(The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는 1984년 항만경제학 및 항만에 관한 연구를 위해 창립되어 전국 70여 개의 무역, 해운물류업계 및 관련학과 교수 등 5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인 한국항만경제학회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해양수산부에 항만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장교수는 해양연구원(KORDI)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거쳐 2003년부터 인하대에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U8 컨소시엄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해사문제연구소

제1기 해운실무교육 실시

한국해사문제연구소(이사장 박현규) 해운물류교육원이 제1기 해운실무교육 해운일반과정을 개설하고 내년 1월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교육기간은 2006년 1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교육시간은 15시부터이다. 교육장소는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운물류교육원 강의실(중구 을지로 2가 보승빌딩 10층)이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수강료는 20만원이다.

△교육과정: 해운실무교육 해운일반과정<제1기>

△교육기간: 2006년 1월 16일(월)~20일(금)<5일간>15:00~18:00, 19:00

△교육장소: (재)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운물류교육원 강의실(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63-3 보승빌딩 10층)

△모집인원: 30명(선착순, 회사당 인원제한 없음)

△수강료: 20만원(고용보험 교육비환급과정)

△신청마감: 2006년 1월 12일(목)

△학사관리: 수료증 발급(교육시간 80% 이상 출석시)

△교과목 및 강사진 : 해사개론(4시간, 부산해사고등학교 백인흠 교사), 해사용어(4시간, 한국해양대학교 민성규 명예교수), 선적실무(3시간, 오시학 국제무역컨설팅 대표), 항만운영(3시간, 김형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효율화팀장), 물류실무(3시간, 마리웨어 김은길 고문)

△신청 및 문의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운물류교육원(전화 02-776-915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상해물류연구센터 개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이정환)이 12월20일 중국 상하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상해물류연구센터 개소식을 갖고 한국과 중국간 해운 및 물류분야 협력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컨티넨탈 호텔에는 오거돈 해양수산

부장관, 김양 상하이 총영사, 이환식 경제인문사회이사회 사무국장, 추준석 부산항만공사사장, 백옥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등 한국측 인사와 모우귀화 SIPG 생산부 총경리, 천강(陳剛) 상해교통대학 부총장 등 중국측인사,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중국기업관계자 등 총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환 원장은 상해물류연구센터에서 동북아 공동물류시장 창설에 관련한 연구와 한-중 협력을 위한 핵심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상해물

류연구 센터가 한국과 중국 간의 물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정책 브레인 역할과 동시에 민간 외교관 역할에서도 큰 기대를 표시하였다.

한편, 개소식에 이어 열린 '제1회 KMI상해물류 포럼'에서는 양국간의 물류현황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임종관 상해물류연구센터장은 해운물류 환경변화에 대한 향후 전망을 통하여 양국간 물류협력의 미래와 과제를 제시했으며 이날 개소식에 참여한 한국 및 중국기업 관계자들도 해운물류분야의 양국간협력에서 상해물류연구센터역할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인사이동

GS칼텍스

GS칼텍스는 12월21일부로 나완배 정유영업본부장과 허진수 생산본부장을 각각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또 김병열 사업전략부문을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사장 : 나완배 정유영업본부장, 허진수 생산본부장 △부사장 : 김병열 사업전략부문장 △전무 : 김명환 업무/홍보부문장, 김성진 인재개발(생산)부문장, 서윤석 CC Network 사업부문장, 이재영 인사부문장, 정영준 해양도시가스 대표이사 △상무 : 박태경 기술부문장, 손영권 영업지원부문장, 신명균 특수영업팀장, 조창래 방향족사업부문장, 조효제 LNG구매부문장, 진대호 정보시스템부문장, 천영태 GS파워 기획/재무부문장

STX팬오션

STX팬오션(대표 이종철)은 최근 유천일 상무를 전무로 승진 발령하는 등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승진) △전무 : 유천일(전략기획본부장), 정갑선(대형선 영업부문장) △상무 : 문기웅(탱커영업본부장), 김태정

(관리본부장), 심재윤(컨테이너선영업본부장), 최임엽(싱가폴법인장), 이승원(부정기선영업1본부장) (업무분장) △변용희 전무 : 경영관리부문장 겸 정보화 TFT장 △이상문 전무 : 특수선영업부문장 △추성엽 전무 : 부정기선영업부문장 △오광학 상무 : 정기선영업본부장 △서충일 상무 : 자동차선영업본부장 △변희욱 부상무 : 운항기술본부장

흥아해운

흥아해운이 12월26일 하반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박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을 기획담당상무로 영입하는 등 2006년 1월1일부로 인사발령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임원발령) △기획담당 상무 : 박태원

(승진) △차장 : 이쌍규(회계팀), 조용범(수입삼국간영업팀) △대리 : 권재영(재무팀), 김광연(회계팀), 김도훈(공무팀), 김우재(방콕사무소), 박재연(전산팀), 송기열(수출영업팀), 신성훈(수입삼국간영업팀), 신진식(상해사무소), 오재영(울산사무소), 차광범(탱커팀), 최낙정(수출영업팀) △계장 : 하승우(인천영업소업무팀), 홍해란(업무팀)